

하룻밤 詩 100수 쓴 속작가... 유불 교유 즐겨

역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⑩ 오산 차천로

차천로(車天路, 1556~1615)는 조선 중기 문장가로 한호(韓濩), 최립(崔)과 함께 송도삼절(松都三絶)이라 칭송되는 인물이다. 그의 자는 복원(復元), 호는 오산(五山), 난우(蘭叟), 풀실(樸實), 청묘거사(淸妙居士)를 썼다.

그는 출중한 글재주로 선조의 총애를 받았지만 평생 하급관직을 전전하며 고단한 삶을 살았다. 연유는 과거 시험 대작(代作) 사건과 개성출신이라는 지역적 한계 때문이다. 조선이 건국된 후 개성 출신의 과거 정지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종환(李重煥, 1690~1756)의 <택리지>에 “태조께서 공양왕의 선양을 받아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는데 고려의 신하였던 세가와 대쪽들은 신하로 섬기고자 하지 않아 모두 남고 따르지 않았다. 그들이 사는 동네를 두문동(杜門洞)이라고 하였다. 태조께서 (이들을) 미워하여 백 년 동안 (개경출신) 선비와 자제의 과거를 정지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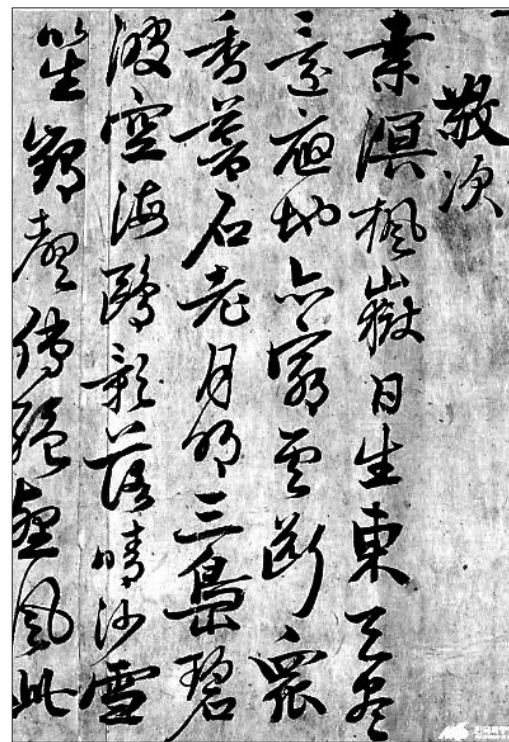
원래 그의 가문은 고려의 명문거족이었지만 조선이 건국된 후 멸문의 화를 입었다가 세종 때에 부친 차식(車軾)이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에 나가면서 점차 가세가 회복되었다고 한다. 특히 그의 부친과 아우 윤노(雲魯)는 모두 문장에 뛰어났기에 북송의 삼대 문장가인 소순(蘇洵), 소식(蘇軾), 소절(蘇轍) 삼부자에 비견되었다. 이런 사실은 흥남종(洪萬宗, 1643~1725)의 <순오지(旬五志)>에 “차식 삼부자의 문장은 미산의 삼소와 같다(車軾三夫子之文章 猶眉山之三蘇)”고 한 것에서 확인된다. 당시 차식 삼부자의 문장이 얼마나 출중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1577년 알성문과에서 병과에 급제해 개성교수(開城教授)를 지냈다. 알성시(聖聖試)에 정자(正字)로 있었을 때에 고향 사람 여계선(呂繼先)의 답안을 대작해준 일이 발각되어 국문을 받았다. <선조실록> 19년 10월에 “선조는 차천로의 대작 사건을 유림의 천만년 동안 잊을 수 없는 수치”로 간주했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그의 재주를 아껴 삼년정배(三年定配, 삼년 동안 유배됨)만을 내렸을 뿐이다. 당시 사람들이 모두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조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선조의 그에 대한 배려는 세심하였다. 김득신의 <종남총지(終南叢誌)>에는 명주에 부임하는 북병사(北兵使)에게 차천로를 당부할 정도였다고 하였다. 그가 1588년 11월경에 유배지에서 풀려나 승정원으로 복귀한 것도 선조의 배려였다.

그의 글재주는 얼마나 대단했던 것일까. 결론적으로 그는 속작(速作)뿐 아니라 다작(多作)에도 남다른 재주를 가졌다고 한다. 남옹의(南龍翼, 1628~1692)는 <호곡시화(壺谷詩話)>에 “(차천로) 자신이 말하길 만리장성에 종이를 붙여 놓고 내게 말을 달려 글을 쓴다면 만리장성이야 끝이 없겠지만 나의 시는 끝이 없을 것(自言貼紙於萬里長城 使我走筆則城有盡 而我詩不窮云)”이라며



차천로가 교유했던 오대산 상원사의 전경.



차천로 글씨

<사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차천로의 호언장담을 증명하였다. 또한 글재주 하나로 거둔 그의 외교적인 성과는 그의 <행장(行狀)>에 자세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사신 주지번이 평양성에 들어와 <회고시(懷古詩)> 100수를 지어 날이 밝기 전에 올리라 하였다. 밤이 짧아 시를 지을 수 있는 자가 없었다. 백사 이항복은 “오산이 아니면 감당하지 못한 다”고 하였다. 그는 좋은 술 한 동이와 병풍 한 틀, 한식봉이(시틀) 쓰기를 청하였다. 술 심여 잔을 마신 후 병풍 안으로 들어가 한식봉이 종이를 펴고 붓에 먹을 찍어 준비하자 그가 큰 소리로 시를 읊는데 물이 솟고 바람이 부는 듯했다. 밤이 깊어지기 전에 시 100수를 다 지었다. 닭이 울기 전에 (주지번에게) 나아가 올리니 중국 사신이 불을 밝히고 다 읽지도 않았는데 손에 잡았던 부채를 두드려 부서졌다. 우리나라의 문장이 중국에 유명해진 것은 그의 공이 컸다(天使朱之蕃入箕城 使製懷古詩百韻 未曉以進 方短夜 無可應者 李白沙公曰 非五山 無可當之 公請官酒一盆 大扉一座 韓石峯筆 痛飲數十鍾 入扉內 石峯展紙 濡筆臨之 公即大聲大唱 水涌風發 夜未半 百韻已成 鷄未鳴 進畢 天使秉燭讀未訖 所把之扇盡扣碎之 我東文章之著於中國 五山之力居多)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명나라 사신의 횡포는 대단했던 듯하다. 하룻밤 사이에 시 100수를 지어 바치라는 사신의 말은 거역할 수 없는 강대국의 위세였다. 백사 이항복도 조선이 자랑하는 문장이었지만 이 요구를 감당하기엔 부담이 되었던지 차천로를 천거하여 사신의 요구를 일거에 해결하였다. 실제 명나라 사신 주지번의 이런 무례한 요구는 조선 왕실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선의 선비를 발아래 두려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굴복할 조선이 아니다. 선비의 도리는 학문을 갈고 닦는 일기기에 대내외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도 선비의 규범은 사라지지 않았다. 물론 차천

사신 요구도 단번에 해결한 速作·多作 능력 갖춘 문장가 시험 代作해 한직 머물러도 도인 품모로 승려들과 교유

로의 재주야 하늘이 낸 것이지만 그를 길러낸 토양은 조선의 사회적 여건이라 하겠다.

그가 승려들과 교유했던 여정은 문집을 통해 확인된다. 오대산 상원사와 금강산. 문수사(文殊寺), 지족사(知足寺) 등을 유람했고 설강(雪嶺), 성민(性敏), 신찬(信贊) 이외에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승려들과 교유했던 흔적이 보인다. 특히 행주의 새 절과 정토사 중장불사를 위해 <행주신찰 권선문(幸州新刹勸善文)>, <정토사중장모재권선문(淨土寺中長募財勸善文)>을 지었다는 사실이 돋보인다.

그가 1593년에 지은 시를 가져온 성민(性敏) 스님에게 하담한 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생의 바위에서 삼생의 꿈을 꾸니
(三生石上三生夢)
일편의 산골, 작은 구름이로다
(一片山頭一片雲)
자네는 웅당 백업을 내보내는 것일 뿐
(自在 應 輸 白 業)
진어를 어찌 현문에 숨길까(眞如何用隱玄文)
산속의 사찰에다 일신 살 곳 정하니
(禪 枝 慧 窟 身 方 定)
육해와 천상의 길이 이미 갈라졌네
(慈 海 空 天 路 已 分)
일찍이 원공 찾아 절에 들어가길 구하니
(會 逢 遠 公 求 入 社)
진정군에 미치지 못함을 마음으로 알았네
(心 知 不 及 普 徵 君)

이미 그는 불교의 삼생을 요해(了解)했으며 유불의 아름다운 교유 호계삼소(虎溪三笑)로 알 수 있었다. 진여와 자재, 백업, 현문 등의 불교 교리에도 자유자재했던 것은 독서 때문일 것이다. 일필(逸筆)로 “삼생의 바위에서 삼생의 꿈을 꾸는” 이치를 드러내 “일편의 산 골, 작은 구름”에 짝을 맞춘 그의 시는 분명 공 도리를 터득한 이의 말일 게다. 그가 말한 자재(自在)란 걸림이 없는 세계이다. 이미 그는 마음의 번뇌가 떠난 경지를 이룬 선비였던가. 그러기에 진어를 숨길 필요가 없다고 했을 것이다. 더구나 그는 속진이 사라진 곳, 깊은 산 속에 위치한 사찰에 한 몸을 의지했기에 속세와 천상이 나누어지는 경계를 알았던 것이다. 그와 시를 주고받았던 성민 스님을 동림사의 해원법사에 비유한 의도나 자신을 도진장군(晉徵君), 즉 도연명(陶淵明)에 은근히 견주어 본 종구(終句)는 유불교유의 깊이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이밖에 그가 <취중에 산승(山僧)의 시축(詩軸)에 쓰다>라는 시에서도 유불 교유의 단단함을 이리 표현하였다.

창려(한유)가 서문을 지은 건 문창 때문이고
(昌黎作序緣文暢)
광록(안연지)이 시를 쓴 것은 혜휴를 위해서라
(光祿題詩爲惠休)
늙은이 몽당뿔을 사랑하지 않으니
(老子不辭拈髮筆)
고승이 한사코 무심한 마음을 물어 보네
(高僧剛解問虛舟)
창천에 구름 건자 비로소 비가 났고
(雲開碧落初收雨)
수목에 바람이니 가을이 다가왔네
(風 青 林 政 值 秋)
취해서 초가집에 누웠다가 다시금 깨어 기대어
(醉臥茅 齋 隱 几 臥)
가만히 담약을 바라보니 환하게 수심 사라지네
(靜觀南岳齋 窈瑟)

당시 시에 밝았던 승려들이 자신의 시축에 명망이 있는 선비의 제발(題跋)을 받는 건 당시의 시풍이었던 듯하다. 당대의 대문장가로 척불론(斥佛論)을 주장했던 한유도 문장 승려에게 <송부도 문창사서(送浮都文暢師序)>를 지어 주었고 안연지(顔延之) 또한 혜휴(惠休)를 위해 시를 지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몽당뿔처럼 변변치 못한 사람인데도 고승이 찾아와 허주(虛舟, 텅 빈 배)를 물었다는 것이다. 그의 경지는 바로 “창천에 구름 건자 비로소 비가 났고/ 수목에 바람이니 가을이 다가왔네”와 같다. 이미 허주처럼 텅 빈 그는 도학자의 품모를 지닌 듯하다. <산인(山人) 신찬(信贊)이 술을 가지고 찾아왔기에(山人信贊 携酒見訪)>에는 승려와의 깊은 교유가 드러난다. 이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님은 내가 벽처에서 빈한한 걸 알고서
(沙彌知我索居貧)
글 배우는 사람처럼 술 들고 찾아 왔네
(載酒還同問字人)
꽃잎 질 때 문을 닫고 서책을 덮었다니
(門掩落花拋簡牘)
석양 길 때 석장 짚고 속세를 방문했네
(錫飛斜日訪風塵)
나른하게 완적처럼 눈을 돌려 부화한 세상 보며
(閒對殿山笑浮世)
한가롭게 은산과 이 신세를 비웃었지
(閒對殿山笑此身)
춘광(춘)에 보답할 기회 응당 있을 테니
(報答春光應有地)
취중에 내뱉은 말 바로 내 진심일세
(醉來披豁是吾真)

그를 찾아온 신찬 승려는 예의가 바른 수행자였다. 그러므로 제자가 스승을 찾아올 때처럼 봉물(奉物)로 술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는 꽃을 감상하던 한가로움에 그에게 찾아온 객은 바로 신찬 승려였다. 그러기에 “나른하게 완적처럼 눈을 돌려 부화한 세상 보며(閒對殿山笑浮世)/ 한가롭게 은산과 이 신세를 비웃었지(閒對殿山笑此身)”라는 것이다. 이는 정거운 유불교유의 현장을 눈으로 보는 듯하다. 이 시에 “완안(阮眼)”이란 고사(故事)는 <세설신어(世說新語)>에 “진(晉)나라 완적은 예절에 구애를 받지 않고 청안(靑眼)이나 백안(白眼)으로 사람을 대하였다. 속된 사람을 보면 백안으로 대하다가도 혜강(惠康)이 만취(滿酌)하여 거문고를 가지고 찾아오면 매우 기뻐하면서 청안으로 대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술을 가져온 신찬을 혜강에게 비유하였다. 신찬을 뜻이 통하는 지기(知己)라 여겼던 그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취중에 진심을 전하는 관계, 그와 신찬은 이렇게 뜻이 통했던 지기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허주의 깊은 경지를 “말없는 말(無言之言)”로 전했을 것이다.



박동준
동아시아문화연구소장

제 10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6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 (2개월) ■ 승주: 도량석, 종승 ■ 예경: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나. 중급과정 (4개월) ■ 권공: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다. 고급과정 (6개월) ■ 시련, 삼신이운(패불이운), 대령, 관육, 응호계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사왕도청, 전사시,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 바라춤: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오공양, 유원승, 요점작법
 ■ 사 물: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종사이운 종사경반, 정민익시, 사더림(디베), 예수제익시 등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초급과정: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고급과정: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교육비 10만원 (교재비 별도)

5.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7. 접수기간: 경복 철국궁 약목면 북성리 9길 28 (북성리 1095) 대한불교승가회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8. 문 의 처: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 974-2705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걸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운중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희담석 지렁이염주세트 직경 8mm
 · 구 성: 108염주 + 희담석지렁이
 · 판매가: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세트 직경 12mm
 · 구 성: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세트 직경 10mm
 · 구 성: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30,800원